

#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를 매개변수로

전봉춘\* · 윤한성\*\*

## 〈 목 차 〉

I. 서론	3.4 분석 방법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5 분석 변수 측정
2.1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IV. 분석 결과
2.2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2.3 삶의 만족도	4.2 상관관계 분석
III. 실증 분석	4.3 위계적 회귀분석
3.1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한 가설 설정	V. 결 론
3.2 연구모형	참고문헌
3.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Abstract>

##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해나감에 따라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대인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Hargittai and Hinnant (2008)에 의하면, 인터넷이 경제, 문화,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 전 세계에서 약 54억 명(전 세계 인구의 67.9%)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world internet usage and population statistics, 20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1,904만 명)에서 2022년 93%(4,725만 명)로 크게 증가된 상황이다. 또한, 1인당 인터넷 이용 시간은 2018년 주당 평균 16.5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22.1시간으로 2018년 대비 5.6시간이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국내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김승환, 성준욱, 2020).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에 접근 및 획득을 할 능력

\*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박사과정, pauljeon@naver.com(주저자)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 hansyoon@hansung.ac.kr(교신저자)

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정보격차가 발생할 토대를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별, 지역별, 계층별,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access)과 사용 가능 기술(skills), 활용(uses)의 차이에 따른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김승환, 성준옥, 2020). 특히, 특정 사회적 계층 또는 집단 간에 인터넷 활용의 질적·양적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규모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2022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서 정보에서 소외된 4대 정보 취약계층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보화 수준을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면, 4대 정보 취약계층이 일반 국민 대비 76.2%로 2021년 75.4% 대비 0.8%p 상승했으나, 일반 국민과 정보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4대 정보 취약계층의 일반 국민 대비 고령층 69.9%, 농어민 78.9%, 장애인 82.2%, 저소득층 95.6% 수준으로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고령층 다음으로 농어민 계층이 일반 국민과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동 조사에서 파악된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도 경제적 격차, 문화 격차 등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시현, 이진창, 2019), 두 지역 간에는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데도 차이를 보인다(이향수, 이성훈, 2018). 통계청 2022년 4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67.2세로서 60대 이상이 77.3%를 차지하고 있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2%로 전년보다 3.7%p 증가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렇듯 농어민들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화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대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4대 정보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 간 디지털격차에 대한 여러 요인과 현황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서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어민 계층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를 매개변수로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농어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2.1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20세기 후반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학자들에 따른 구분을 정리하였다.

학자별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2022)에 나타난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2)에서 구분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과 4대 취약계층의 디

<표 1>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학자별 구분

학자	구분
Selwyn(2004)	접근·이용·참여·성과
Hargittai & Hinnant(2008)	인터넷 이용의 자율성(autonomy) · 기술(skill) · 자본 향상 활동(capital enhancement)
김문조·김종길(2002)	접근성·활용성·수용성
김봉섭·김정미(2009)	접근격차·기술격차·경제적 기회 격차·민주적 격차
민영(2011)	양적 활용·질적 활용
정준화(2017)	물리적 접근·양적 이용·질적 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디지털 정보 접근·디지털 정보 역량·디지털 정보 활용

\* 이근희(2022)의 구분을 재인용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을 종합한 지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를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지로 측정하고 있으며(항목 간 가중치는 4:4:2), 이들 지표를 다시 분류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2022년 기준,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은 95.7%로 높은 편으로 2020년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일반 국민 대비 농어민의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정보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은 각각 70.6%, 78.8%로 접근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이용할 수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민 가구는 60.3%로 일반 국민 보유율 72.4%

보다 12.1%p 가 낮았으며, 전년 대비 농어민 PC 보유율 58.0%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남성(62.9%)이 여성(57.6%)보다 높고, 20대 이하 100%, 30대 93.1%, 40대 92.6%로, 저연령 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민의 모바일 스마트기기(스마트폰/스마트 패드/기타 주변기기 중 하나) 보유율은 84.3%로 일반 국민 스마트기기 보유율 98.3%보다 14.0%p가 낮았으며, 전년 대비 보유율 83.4% 대비 0.9%p 증가하였다. 이어 성별 기준 시 남성(87.7%)이 여성(80.6%)보다 높고, 나이별로는 60대 이상(79.1%)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어민 가구의 99.3%가 가구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패드 등을 사용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것으

<표 2>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에 대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디지털 서비스 이용 다양성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생활서비스 이용률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률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온라인 경제 활동률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2) 자료를 재구성

로 파악되며, 이는 일반 국민(99.5%)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다만,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을 보면,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79.6%로 일반 국민 91.4%보다 11.8%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86.7%로 일반 국민 91.8%보다 5.1%p 낮은 수준이며, ‘생활 서비스 이용률’은 79.7%로 일반 국민 89.3%보다 9.6%p 낮으며,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률’은 43.2%로 일반 국민 59.2%보다 16.0%p 낮고,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60.7%로 일반 국민 72.4%보다 11.7%p 낮은 상태이다.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34.4%로 일반 국민 38.9%보다 4.5%p 낮으며, ‘온라인 경제 활동률’은 44.9%로 일반 국민 62.8%보다 17.9%p 낮은 상태이다. 즉,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3>과 같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2022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서 활용하는 위의 7개 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2002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에 대한 분석에 동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여 동 지표를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의 하위 지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2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태도(attitudes)를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라고 정의하고, 특정 대상 또는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엄사랑 등(2020)은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는 새로운 기술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의미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새로운 기술 및 기기의 사용과 활용까지 이어지나, 일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간보다 새로운 기술과 기기의 개발과 혁신이 더 빠르게 진행될 때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봉섭과 고정현(2022)은 특정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평가 신념이라 할 수 있는 태도는 특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특정 행동의 방향을 예측하려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디지털기기라는 기술에 대한 적극성과 자

<표 3> 농어민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구분	농어민	일반 국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79.6%	91.4%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86.7%	91.8%
생활 서비스 이용률	79.7%	89.3%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률	43.2%	59.2%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60.7%	72.4%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34.4%	38.9%
온라인 경제 활동률	44.9%	62.8%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2) 자료를 재구성

신감 등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맥락 등 다양한 주변 환경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획득한 개인의 성공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문조와 김종길(2002)은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디지털기기의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학습해야 하므로, 디지털기구나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정보 취약계층일수록 새로운 기술과 정보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정보격차 이슈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매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자료에 따라서 국내의 인터넷과 디지털기기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구에서 인터넷 접속(99.96%, 0.01%p ↑)이 가능하며, 컴퓨터(81.0%, 7.4%p ↑), 스마트폰(98.6%, 2.0%p ↑) 등 기기 보유율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노트북(53.5%)이며, 또한 남자(94.5%)의 인터넷 이용률이 여자(91.5%)보다 다소 높고, 나이별로는 50대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98.6%)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의 최근 1년 이내 컴퓨터 사용률은 62.0%로서 일반 국민 85.8%보다 23.8%p 낮으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메일, 문자, 메신저를 보내는 활용 능력은 93.5%로서 일반 국민 96.4%보다 2.9%p 낮게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90.2%로서 일반 국민 92.0%보다 1.8%p 낮으며, 또한,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90.3%로 일반 국민 92.3%보다 2.0%p 낮다. 1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2.4시간으로 일반 국민 22.1시간보다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기기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농어민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유용하다’ (77.0%), ‘삶을 편리하게 한다.’ (68.9%), ‘나에게 좋은 것이다’ (65.0%),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 (60.5%) 순으로 조사되었고,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관련 4개 항목 모두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농어민은 일반 국민 대비 4개 항목 모두 긍정적인 응답률이 적은 상황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 4> 농어민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일반 국민	농어민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 비이용자
유용하다	89.9%	77.0%	83.3%	43.8%
삶을 편리하게 한다.	81.7%	68.9%	75.6%	32.6%
나에게 좋은 것이다.	79.6%	65.0%	72.3%	25.7%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	76.7%	60.5%	67.3%	23.8%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2) 자료를 재구성  
(98.6%), 스마트TV(63.5%), 데스크톱(56.2%),

### 2.3 삶의 만족도

정선영(2016)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삶에 만족을 느끼는 요인으로 개인마다 상대적이지만, 가족 간의 친밀도, 교우관계, 직장 생활 만족도, 건강 상태, 경제적 여유 등으로 나뉘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개인들이 스스로 삶에 어느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여러 유사한 개념이 있으며 예를 들면 ‘삶의 질’, ‘행복도’, ‘만족도’, ‘웰빙’ 등을 들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의하면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 또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며, oxford Languages에 의하면 행복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 혹은,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선영(2016)에 의하면 ‘삶의 질’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표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삶의 질’과 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며 긍정적 정서를 많이 또는 자주 경험하는 것을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안녕감’ 혹은 ‘행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순돌과 이선희(2011)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 개념이 개인의 건강 중심의 협의적인 개념에서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 광의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인 개념에서 개인의 상대성이 포함되는 주관적인 지표 중심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임유신, 문상호, 2023), 인터넷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용 능력과 개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증가할수록 취약계층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정보격차가 줄어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시현, 이진창, 2019).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조사에서 농어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46.7%), ‘내 삶의 조건들은 우수하다.’ (42.6%),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69.8%),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은 얻었다’ (65.0%), ‘다시 살면, 거의 아무것도 안 바꿀 것이다’ (42.2%) 순으로 조사되었고, 삶의 만족도 관련 5개 항목 모두 일반국민과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 5> 농어민 삶의 만족도

	일반국민	농어민	인터넷이용자	인터넷 비이용자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56.8%	46.7%	51.0%	23.8%
내 삶의 조건들은 우수하다.	53.6%	42.6%	46.4%	22.0%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72.3%	69.8%	72.3%	56.6%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은 얻었다	69.1%	65.0%	66.8%	55.2%
다시 살면, 거의 아무것도 안 바꿀 것이다	49.9%	42.2%	45.5%	24.7%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2) 자료를 재구성

### III. 실증 분석

#### 3.1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한 가설 설정

##### 3.1.1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하는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정보화를 접근(access), 역량(skill), 활용(utilization)의 세 가지 지표로 구분하고 각 지표의 수준을 측정해 가중 합계를 통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제시하였으며, 접근, 역량, 활용의 개념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2조에 따르면,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뜻한다(김반야, 권종실, 2022).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의 논점은 접근, 역량, 활용이라는 관점에 추가하여 디지털기기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 능력, 이용 방식 차이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기기 보유,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등 물리적인 차원의 격차를 1차 정보격차(first-level digital divide), 디지털 서비스 활용 능력 및 이용 방식 차이 등과 같은 질적인 차원의 격차를 2차 정보격차(second-level digital divide)로 구분했다(Eynon & Malmberg, 2018; Helsper et al., 2015). 즉, 디지털 정보화의 접근 수준의 차이는 1차 정보 격차, 디지털 정보화의 역량과 활용 수준의 차이는 2차 정보격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반야, 권종실, 2022).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

스 활용이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지속되어 왔다. Lissitsa and Chachashvili-Bolotin (2016)은 인터넷을 일상생활에 도입하고 디지털기기 및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음을 밝혔다. 더불어,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은 고령자 및 경제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 중 고령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잘 활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황현정, 황용석, 2017; 윤희정 등, 2020; Lifshitz et al., 2018). 또한, PC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만족도가 증가했다(연은모, 최효식, 2019).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디지털 정보화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로만으로는 농어민의 경우에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실증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2 디지털 정보 활용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동기는 인간의 목적지향적 행동을 자극·유발하는 요인으로 중고령자의 디지털기기 이용

등기는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양적·질적 차원의 노력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황장선 등, 2006). 특히 PC 및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만족도가 증가했다(연은모, 최효식, 2019). 또한, 디지털기기에 대한 친숙한 태도는 웹사이트 및 이러닝(e-Learning) 등에 대한 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대천, 김상훈, 2008; Castillo & Serradell, 2014). 또한, Castillo and Serradell(2014)은 온라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닝 수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이러닝에 대해 익숙하고 스스로가 이러닝을 이용하는데 거부감 및 어려움이 없으며 더 자주 이용하는 등의 긍정적으로 성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 활용한 정보 획득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수준에 따라서 디지털기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발행한다(DiMaggio, et al., 2001). 전통적으로 개발은 공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대도시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발전은 느리게 진행된다. 도시에 비하여 느리게 진행된 농어촌의 정보화는 농어민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야기한다(이동필, 김종선, 1997). 농어촌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지역에 속하거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Strover, 2001; 박영민, 남기범, 2016).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활동은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최형임, 송인욱, 2020)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 활용수준과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는 농어민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3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와 삶의 만족도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용, 전해정, 2017),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보습득, 사회관계망 유지 및 구축, 사회참여 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만(김봉화, 2006; 강월석 등, 2013), 디지털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중고령자는 정보수준 감소, 사회적 관계망 감소 및 우울 증가와 같은 취약점이 나타났다(Sourbati, 2009; Wei, 2012). 중·장년층의 디지털기기의 이용 태도에 관한 연구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보역량이 향상하고 및 정보 활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사랑 등, 2020). 또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뤄지고 있다(김수경 등, 2021). 농어민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연구가 되었으며(신용주, 구민정, 2010; 김미령 등, 2012; 김희정, 2019; Dorin, 2007; Seifert & Schelling, 2018), 이에 따라서 농어민의 경우에도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농어민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통제변수는 성별, 학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은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를 매개변수로 회귀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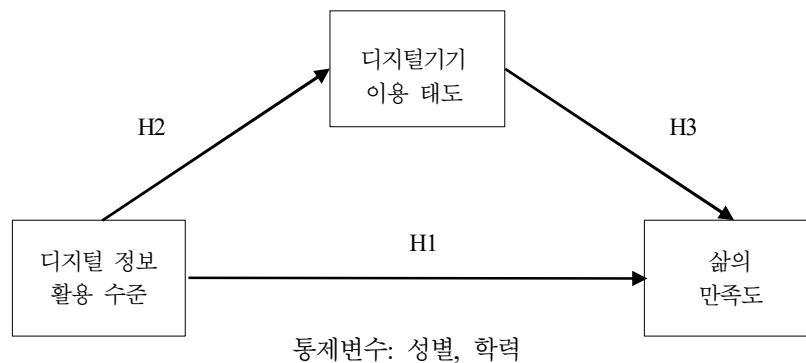
H1 :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농어민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수행한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동 실태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계열적 조사·분석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전국 규모 조사로, 2002년부터 연간 단위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디지털 정보 활용수준 및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22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중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했다. 농어민의 경우, 2022년 8월 1일 현재 경제활동인구 기준에 부합하며, 전국의 농어가(전업·겸업)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례추출 방법으로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1,140	51.8%
	여성	1,060	48.2%
연령별	20대 이하	25	1.1%
	30대	52	2.4%
	40대	149	6.8%
	50대	421	19.1%
	60대 이상	1,553	70.6%
학력별	초등졸 이하	664	30.2%
	중졸	491	22.3%
	고졸	843	38.3%
	대졸 이상	202	9.2%
직업 구분별	농업	2,088	94.9%
	어업	112	5.1%
거주지 규모별	시지역	1,004	45.6%
	군지역	1,196	54.4%
월가구 소득률	100만원 미만	283	12.9%
	100-199만원	589	26.8%
	200-299만원	480	21.8%
	300만원 이상	848	38.5%
합계		2,200	

로 표본을 추출했다.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2022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가 대상으로 한 2,200명의 농어민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검증하기 위해 AMOS 22를 기반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SPSS 27.0을 기반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5 분석 변수 측정

#### 3.5.1 독립변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설문 조사한 ‘2022 디지털 정보 격차실태조사’ 중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설문 항목은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4개 문항,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에 대한 5개 항목, ‘생활 서비스’에 대한 4개 항목에 대해서 4점 리커드 척도(“전혀 이용 안 한다.” 1점, “별로 이용 안 하는 편이다” 2점,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 3점, “자주 이용한다.” 4점)가 사용되었으며, ‘정보생산 서비스’에 대한 2개 항목,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2개 항목, ‘사회참여 서비스’ 4개 항목, ‘경제 활동 서비스’ 4개 항목

에 4점 리커트 척도(“전혀 없다” 1점, “별로 없다” 2점, “가끔 있다” 3점, “자주 있다” 4점)를 사용되었다.

### 3.5.2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설문 조사한 ‘2022 디지털 정보 격차실태조사’ 중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가 사용되었다. 설문 항목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로 총 5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3점, “매우 만족” 4점)가 사용되었다.

### 3.5.3 매개변수 :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설문 조사한 ‘2022 디지털 정보 격차실태조사’ 중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설문 항목은 ‘디지털 기술은 유용하다’, ‘디지털 기술은 내 삶을 편리하게 한다’, ‘디지털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로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가 사용되었다.

## IV. 분석 결과

###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매개변수인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동일한 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지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의 하위요인에 대해서 각각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잠재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본적합도(MSA)는 0.934, 유의확률 <math><.001</math>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 = 27911.845, p = 0.000$ 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요인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을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요인 2를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요인 3을 ‘삶의 만족도’로 명명하였다(<표 7> 참조).

<표 7>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93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7911.845
	자유도	120
	유의확률	.000***

\*p< .05, \*\*p< .01, \*\*\*p< .001

항목	공통성	요인			Cronbach's alpha
		1	2	3	
사회적관계 서비스 이용률	0.919	0.959	0.460	0.330	0.892
온라인 경제 활동률	0.910	0.954	0.449	0.344	0.893
콘텐츠서비스 이용률	0.901	0.945	0.535	0.336	0.891
생활서비스 이용률	0.898	0.939	0.569	0.357	0.890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0.890	0.939	0.380	0.333	0.900
온라인 경제 활동률	0.910	0.922	0.434	0.331	0.893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0.794	0.889	0.472	0.268	0.904
나에게 좋음	0.706	0.418	0.839	0.294	0.798
더 많이 이용하고자한다	0.636	0.415	0.797	0.267	0.803
삶을 편리하게 한다	0.578	0.412	0.759	0.246	0.804
나에게 유용하다	0.525	0.348	0.724	0.195	0.810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0.539	0.245	0.182	0.733	0.821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	0.458	0.279	0.207	0.674	0.823
변경 필요한 것 없음	0.458	0.202	0.121	0.671	0.828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0.359	0.195	0.263	0.590	0.823
내 삶에 만족한다	0.295	0.224	0.239	0.537	0.826
요인명		디지털 정보 활용수준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삶의 만족도	
고유값		7.643	2.252	1.895	
분산 비율		47.767	14.077	11.846	
누적 분산비		47.767	61.844	73.691	

※ extraction method: CFA(common factor analysis)

※ rotation method: direct oblimin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변수 측정 문항들의 타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chi^2$ (CMIN) =10335.572, p<.001, TLI=.906, CFI=.907, RMSEA=.077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정보 활용수준, 디지

털기기 이용 태도, 삶의 만족도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

—————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를 매개변수로

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각 변수들은 유의수준 0.01에서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4.3 위계적 회귀 분석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성별과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을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도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1]  $F=43.647$  ( $p<.001$ ), [모형2]  $F=122.883$  ( $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0.089$ , [모형2]  $R^2=0.255$ 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165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 ( $F=400.568$ )에 따른 유의확률  $p<0.001$ 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2]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t=20.014$ ,  $p=0.000$ 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beta=0.442$ 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증가하면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표 9> 참조).

<표 8> 주요 변수 간 피어슨 상관분석

	디지털 정보 활용수준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삶의 만족도
디지털 정보 활용수준	1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483**	1	
삶의 만족도	.318**	.327**	1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 9>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beta$	t(p)	B	SE	$\beta$	t(p)
(상수)	12.931	0.152		85.192***	9.113	0.235		38.781
성별	0.078	0.102	0.017	0.761	0.059	0.092	0.013	0.635
초등학교 졸업	-1.977	0.191	-0.310	-10.330***	-0.938	0.181	-0.147	-5.192***
중학교 졸업	-1.985	0.173	-0.368	-11.488***	-0.719	0.169	-0.133	-4.267***
고등학교 졸업	-1.044	0.153	-0.233	-6.812***	-0.157	0.146	-0.035	-1.082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0.033	0.002	0.442	20.014***
F(p)	43.647***				122.883***			
$R^2$	0.089				0.255			
adj. $R^2$	0.086				0.253			

\* $p<.05$ , \*\* $p<.01$ , \*\*\* $p<.001$  reference group : 성별\*여성, 최종학력\*대학교 이상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최종학력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성별과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을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1]  $F=10.352(p<.001)$ , [모형2]  $F=35.925(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0.023$ , [모형2]  $R^2=0.091$ 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068 증가하였다. R 제곱 F변화량( $F=135.128$ )에 따른 유의확률  $p<0.001$ 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 (TOL)는 0.1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

형2]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t=11.624$ ,  $p<0.001$ 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beta=0.283$ 으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다만,  $R^2$ 과 adj.  $R^2$ 이 0.1이하로 설명력이 낮지만, [모형1], [모형2] 각 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이 0.7이상이고, 상관분석 결과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696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R 제곱 F변화량 유의확률  $p<0.001$ 으로서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표 10> 참조).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최종학력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표 10>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변수	모형1				모형2			
	B	SE	$\beta$	t(p)	B	SE	$\beta$	t(p)
(상수)	13.501	0.161		83.623***	10.986	0.267		41.210***
성별	0.037	0.109	0.008	0.336	0.024	0.105	0.005	0.228
초등학교 졸업	-1.092	0.204	-0.167	-5.365***	-0.408	0.205	-0.062	-1.989
중학교 졸업	-0.854	0.184	-0.154	-4.649***	-0.020	0.191	-0.004	-0.107
고등학교 졸업	-0.395	0.163	-0.086	-2.424	0.189	0.165	0.041	1.145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0.022	0.002	0.283	11.624***
F(p)	10.352***				35.925***			
$R^2$	0.023				0.091			
adj. $R^2$	0.020				0.088			

\* $p<.05$ , \*\* $p<.01$ , \*\*\* $p<.001$

reference group : 성별\*여성, 최종학력\*대학교 이상

다. [모형1]은 성별과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를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1]  $F=21.751(p<.001)$ , [모형2]  $F=34.045(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0.038$ , [모형2]  $R^2=0.072$ 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034 증가하였다. R 제곱 F변화량( $F=80.088$ )에 따른 유의확률  $p<0.001$ 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2]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t=8.949$ ,  $p=0.000$ 으로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  $\beta =0.206$ 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다만,  $R^2$ 과  $adj. R^2$ 이 0.1이하로서 설명력이 낮지만, [모형1], [모형2] 각 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이 0.7이상이고, 상관분석 결과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703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R 제곱 F변화량 유의확률  $p<0.001$ 으로서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표 11> 참조).

## V. 결론

본 연구는 농어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 수

<표 11>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B	SE	$\beta$	t(p)	B	SE	$\beta$	t(p)
(상수)	13.469	0.157		85.955***	11.303	0.287		39.407***
성별	0.083	0.098	0.018	0.849	0.053	0.096	0.012	0.553
초등학교 졸업	-1.316	0.176	-0.242	-7.479***	-0.687	0.187	-0.126	-3.681***
중학교 졸업	-0.849	0.174	-0.156	-4.883***	-0.411	0.178	-0.076	-2.314*
고등학교 졸업	-0.373	0.161	-0.080	-2.323*	-0.184	0.159	-0.040	-1.155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0.168	0.019	0.206	8.949***
F(p)	21.751***				34.045***			
$R^2$	0.038				0.072			
$adj. R^2$	0.036				0.070			

\* $p<.05$ , \*\* $p<.01$ , \*\*\* $p<.001$

reference group : 성별\*여성, 최종학력\*대학교 이상

준에 초점을 두고, 이 두 변수 간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 67조(연차 보고 등) 및 지능 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행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동 자료는 2022년 8월 1일 현재 기준 전국의 만 15세 이상 농업종사자(경제활동인구 연령층 기준)를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 비례추출로 방식으로 추출한 2,200명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격년 단위로 조사되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이는 인터넷 이용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잘 활용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황현정, 황용석, 2017; 윤희정 등, 2020; Lifshitz, et al., 2018)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신용주, 구민정, 2010; 김미영 등, 2012; 김희정, 2019; Dorin, 2007; Seifert & Schelling, 2018) 선행연구가 농어민에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긍정적 영향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한 2022년 디지털 정보 격차실태 조사 통계자료(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2차 자료가 가지는 한계성으로 다양한 요인과 변수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구분하고, 추가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소득별 구분을 통해서 각각의 특성에 따른 요인과 변수를 구분하여 일상생활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변수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다양한 대응책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고 소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 간의 정보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격차에 따라서 계층 간의 디지털 정보 격차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기존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어민 디지털 격차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리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들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농어민의 디지털 격차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른 취약계층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농어민에 대해서는 현상적 이해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본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러 사회계층의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정보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과 농어민들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현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농어민을 위한 복지 측면에서도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검색 기능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활용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 확대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농어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정책·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와 민간 부문이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 성별, 연령, 소득에 따라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농어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월석, 김명숙, 고재욱, “스마트폰 정보 활용과 이용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3권, 제1호, 2013, pp. 199-214.

김대명,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PC/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4권, 제1호, 2022, pp. 73-97.

김문조, 김종길,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2002, pp. 123-155.

김미영, 강윤희, 정덕유, 이건정,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건강정보활용,” 질적연구, 제14권, 제1호, 2013, pp. 13-22.

김명용, 전해정,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72권, 제3호, 2017, pp. 343-370.

김명일, 김영선, 엄사랑,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23권, 제1호, 2020, pp. 51-74.

김반야, 권종실, “디지털 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분석,” *Informatization Policy*, 제29권, 제2호, 2022, pp. 91-105.

김봉섭, 고정현, “노년층의 성취자본이 디지털 자본 획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Informatization Policy*, 제29권, 제2호, 2022, pp. 106-126.

김봉섭, 김정미, “노년층의 정보격차 결정요인 연구: 정보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2호, 2009, pp.

- 193-222.
- 김봉화, “노인의 정보활용, 적응기제 및 삶의 만족도간의 구조방정식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33권, 제1호, 2006, pp. 225-256.
- 김소영, 정진택 “코로나 이후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9권, 제12호, 2021, pp. 531-539.
- 김수경, 신혜리, 김영선,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정보시스템연구, 제30권, 제1호, 2021, pp. 85-104.
- 김승환, 성욱준,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과 디지털격차에 관한 연구,” *Informatization Policy*, 제27권, 제3호, 2020, pp. 19-38.
- 김시현, 이건창 “PC 이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7권, 제9호, 2019, pp. 55-60.
- 김희정,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수준과 건강 만족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조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민영, “인터넷 이용과 정보격차: 접근, 활용,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48권, 제1호, 2011, pp. 150-187.
- 박영민, 남기범, “농촌지역 스마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 정보화마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9권, 3호, 2016, pp. 1-26.
- 박선숙, “세대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세대 차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제30권, 제3호, 2019, pp. 311-330.
- 박선주 등, “디지털 정보 활용 유형이 세대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3호, 2020, pp. 49-81.
- 배도연, “스마트 학습 기기 학습자 요인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정보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서유경, “청각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2023, pp. 215-238.
- 신용주, 구민정, “노인 정보화교육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13권, 제4호, 2010, pp. 119-147.
- 안대천, 김상훈, “수용자의 성별에 따른 유명기업 웹사이트 태도와 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0권, 제3호, 2008, pp. 92-121.
- 엄사랑, 신혜리, 김영선, “중·고령자의 기술 활용도 영향 요인: 중년층과 고령층의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 정보학회지, 제23권, 제2호, 2020, pp. 171-202.
- 연은모, 최효식,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역량,

- 디지털 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산학 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2호, 2019, pp. 636-644.
- 유병민, 김수옥, 박성열, 박혜진, 이은진, “농업 정보화를 위한 농업인 ICT 리터러시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제41 권, 제4호, 2009, pp. 93-119.
- 윤형득, 신현식, “농어민 정보격차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제4권, 제2호, 2009, pp. 143-151.
- 윤희정, 신혜리, 김영선,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정보화 정책, 제27권, 4호, 2020, pp. 85-100.
- 이근희,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2.
- 이동필, 김종선, “지역 간 정보격차와 농촌지역의 정보화,” 농촌경제, 제20권, 제2호, 1997, pp. 63-81.
- 이주실, 전대성 “스마트기기 시대 인터넷 활용이 정보 소외계층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4호, 2015, pp. 431-455.
- 이지현, 여영훈, 오지원, 학해군, “COVID-19 시대 소득그룹간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한 연구: 디지털 서비스 역량, 인식변화, 이용량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3호, 2023, pp. 408-417.
- 이향수, 이성훈, “농어민의 정보격차와 소득수준에 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6권, 제1호, 2018, pp. 13-20.
- 임유신, 문상호, “고령층의 디지털 이용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정관리 연구, 제18권, 제1호, 2023, pp. 61-89.
- 정선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가치관의 영향력: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삶의 질 학회 제59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6, pp. 69-82.
- 정순돌, 이선희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3호, 2019, pp. 179-214.
- 정준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 영향요인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1호, 2017, pp. 151-177.
- 최형임, 송인옥, “노인의 디지털 정보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제21권, 제6호, 2020, pp. 246-255.
- 한국농어민신문, “늙어가는 농촌. 농가 소득도 줄어든다.”, 신문 3483호, 2023.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61>>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20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 20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황장선, 김은혜, 조정식 “웹 사이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인지된 상호작용성, 인터넷 이용동기 및 관여도,” 한국광고홍보학보, 제8권, 2006, pp. 159-186.
- 황현정, 황용석 “노인집단 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가구 구성형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2017, pp.359-386.
- Alexander JAM van Deursen, “Digital inequality during a pandemic: Quantitative study of differences in COVID-19 related internet uses and outcome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Vol. 22, No. 8, 2020, pp. 1-13.
- Castillo-Merino, D. and Serradell-López, E.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students’ performance in e-learn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30, 2014, pp. 476-484.
- Christensen R. and Knezek G. “The Technology Proficiency Self-Assessment (TPSA): Evolution of a Self-Efficacy Measure for Technology Integration,” Paper presented to IFIP KEYCIT, Potsdam, Germany, 2014, pp. 311-318.
- Cristobal Torres-Albero, Jose Manuel Robles., and Stefano De Marco, “Inequalities in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The Robotics Divide*, 2014, pp. 173-194.
- DiMaggio, P., Hargittai, E., Neuman, W. and Robinson, J. “Social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7, No. 1, 2001, pp. 307-336.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1985, pp. 71-75.
- Dorin, M., “Online Education of Older Adults and its Relation to Life Satisfaction,” *Educational Gerontology*, Vol. 33, No. 2, 2007, pp. 127-143.
- Eynon, R., Deetjen, U. and Malmberg, L.-E. “Moving on up in the information society?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social class mobility in Britain,” *The Information Society*, Vol. 34, No. 5, 2018, pp. 316-327.
- Hargittai, E and Hinnant, A.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s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Vol. 35, No. 5, 2008, pp. 602-621.
- Helsper, E. Van Deursen, A. J. A. M. and

- Eynon, R. “Tangible Outcomes of Internet Use,” *From Digital Skills to Tangible Outcomes Project Report*, 2015.
- Ingrid Burkett, “Beyond the ‘information rich and poor’: futures understandings of inequality in globalising informational economics,” *Futures*, Vol. 32, No. 7, 2000, pp. 679-694.
- Johannes M Bauer,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Department of Media and Inform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Quello center working paper, 2016.
- Lifshitz, R., Nimrod, G. and Bachner, Y. G. “Internet use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functional approach,” *Aging & Mental Health*, Vol. 22. No. 1, 2018, pp. 85-91.
- Lissitsa, S., and Chachashvili-Bolotin, S. “Life satisfaction in the Internet age - Changes in the past decad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54, 2016, pp. 197-206.
- Seifert, A., and Schelling, H. R., “Seniors Online: Attitudes toward the internet and coping with everyday lif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37, No. 1, 2018, pp. 99-109.
- Selwyn, N., “Reconsidering political and popular understanding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Vol. 6, No. 3, 2004, pp. 341-362.
- Sourbati, M, “Media literacy and universal access in Europe,” *The Information Society*, Vol. 25, No. 4, 2009, pp. 248-254.
- Strover. S, “Rural internet connectivity,”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 25, No. 5, 2001, pp. 331-347.
- Wei, L. “Number matters: The multimodality of Internet use as an indicator of the digital inequaliti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 17, No. 3, 2012, pp. 303-318.

**전 봉 춘 (Jeon, Bong Chun)**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 한성대학교에서 컨설팅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박사과정으로 재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혁신정책 등이다.

**윤 한 성 (Yoon, Han Sung)**



고려대학교에서 기술경영학 석사와 과학기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ESG경영컨설팅전공 책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혁신정책론과 혁신클러스터론, 기술사업화 등이다.

<Abstract>

## **The effects of farmers and fishers'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level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digital device use attitude**

Jeon, Bong Chun · Yoon, Han Sung

### **Purpose**

In this paper, among the four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disabled, elderly, low-income, farmers and fishermen),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device usage attitudes in the effect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level of farmers and fishermen with a large digital information gap with the general public on life satisfaction was verified.

###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summarizes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digital information gap between farmers and fishermen, and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Report (survey data on 2,200 farmers and fishermen) published by the Korea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romotion Agency. Among the four major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 (the disabled, the elderly, low-income groups, and farmers and fishermen), attitudes toward using digital devices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impact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e on life satisfaction among farmers and fishermen, who have a relatively large digital information gap with the general public. It was verified as a mediating effect.

### **Finding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attitudes toward the use of digital devices were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impact of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e on life satisfaction.

**Keyword:** Information vulnerable class, Digital information gap,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e, Life satisfaction, Attitude towards using digital devices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5일 접수, 2023년 11월 15일 1차 심사, 2024년 2월 26일 2차 심사, 2024년 3월 6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